

# 민자유치 오락가락 순천시정 신뢰성 훼손

### 1200억 순천만랜드 백지화 이어 민간공원 조성 돌연 재검토 2020년 일몰제로 공원 23개소 1600억원 보상해야할 판타 지자체 민자 도입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과 대조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돌연 재검토하기로 해 행정의 신뢰성 훼손과 함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순천시는 민선 6기들어 1200억원 규모의 '순천만 랜드' 등 대형 민자사업 유치 계획을 확정단계에서 백지화하는 등 '투자유치 무산' 행태가 반복되면서 시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재검토 조치에 대해 일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때문이라는 입장지만, 오는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자칫 개인 소유 공원부지에 대해 전문적인 보상비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녹지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는 공원·도로 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고시된 공원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순천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은 23개소 576만2741㎡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원에 이르며,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보상에야 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 투입을 막기 위해 순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민간자본을 일부 수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의 80%를 예치금으로 선입금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한 마찰 우려 등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공원으로 삼산, 향림, 남산, 봉화 4곳을 검토·공모했다.

공모 결과 2개 업체에서 삼산공원, 봉화산공원 2개소를 제안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이 선정됐다.

(주)한양은 삼산공원내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479세대, 봉화산 공원내에 421세대 등 총 1900세대 아파트 2개 단지와 문화방목에 상업시설, 예술인마을 27필지 규모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조종훈 순천시장이 돌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계획이 좌초위기에 놓인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도시자연공원이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대가로 토지주가 재산세 50%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위배된다는 지적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주와 재검토를 지시한 순천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인근 광주시가 최근 마북공원, 송암공원 등 도시 근린공원 4곳을 민간공원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고려하면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다만 개발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 생태·환경 보호,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초록의 순천만습지서 자연과 하나된 아이들



초록빛 갈대숲이 뒤덮인 순천만습지를 찾은 아이들이 쟁쟁어와 방게 등을 관찰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멸종 위기 '노란목도리담비' 잇따라 발견

#### 순천만 인근 야산서 목격 생태환경 보호 노력 결실

환경부 멸종위기 동물인 '노란목도리담비' <사진>가 최근 순천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설치한 카메라에 지난 3월 19일 노란목도리담비가 순천만 인근 야산을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1월 27일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산속에서 뒷에 걸린 담비 2마리를 구조했다.

이 가운데 1마리를 치료해 지난 2월 13일 산으로 돌려보냈고, 야생 적응이 쉽지 않은 1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노란목도리담비는 족제비과 동물로서 몸길이 33~65cm, 꼬리 길이 25~48cm, 몸무게 0.8~3kg으로 2~3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며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 가운데 하나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목 아랫부분이 선명한 노란색 털로 덮여 있고 머리과 다리, 꼬리와 엉덩이 부분은 진한 검은색으로 길고 윤기가 흐르는 동물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리산이나 설악산 등 좋은 자연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담비가 순천만 인근과 주암면에서 발견된 것은 순천시의 생태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순천시가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개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순천만국가정원·습지

####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형 웰니스관광 25선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복합형태의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다.

이번 웰니스관광 25선은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가지 테마로 분류해 선정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자연·숲 치유 분야 전국 4개소 중 한 개소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이자 웰니스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순천만에코촌, 수학여행단 지속적 증가

#### 4·5월 전국서 3500여명 방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이하 에코촌)'이 명품 한옥체험 숙박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수학여행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 초·중·고 30여 학교에서 3500여명의 학생

단체가 에코촌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또 가을철 수학여행 시즌에도 이미 20여 개 학교가 예약을 완료했으며, 연일 사전 답사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코촌은 특히 수도권과 경상권 학생단체의 방문이 많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한편 에코촌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유스호스텔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고객서비스와 시설 안전성 부문에서 최고 시설로 꼽힌다. 에코촌은 4개동 43개방으로 청소년 150명(성인 8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 에코관(식당·다목적실), 생태관(교육·세미나실)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코촌 홈페이지(<http://ecochon.suncheon.go.kr/ecochon>) 또는 전화(061-749-4822)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 '2018 문화의 달 행사' 순천서 열린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2018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문화의 달 행사는 지역의 문화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순천시는 2018년 문화의 달 행사를 '동천어화(東川漁化),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순천만의 노래'를 주제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문화예술로 꽃 피우

다'를 슬로건으로, 자연과 함께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순천시민의 정서와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 대축제 마당으로 승화할 계획이다.

문화의 달 행사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총 사업비 6억원(국비 3억, 지방비 3억)으로 공식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해남 [新] 프리미엄

# 101 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확실한 선택!!

## 해남 101 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서남부권(완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을 품은 위치!
- 해남고, 해남공업고,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학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 두번다시 없을 [新] 프리미엄 기대!

분양 임대 1577-1901

시행 | 주 | 금 | 상 | 진보종합건설(주)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임과,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업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자와 무관합니다.